



새로 나왔어요

● **배우의 방**(정시우 지음·휴머니스트)=배우 김남길은 시간이 가면 단골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며 밥과 김만으로 밥 본연의 맛을 느낀다. 고두심 천우희 이제훈 등 배우 10명이 작품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만의 공간은 어디인지, 그 공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인터뷰로 엮었다. 1만8000원.

● **매한 윤봉길 의사 평전**(김학준 지음·동아일보사)=올해는 매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이다. 윤 의사가 태어나기 전 조선과 대한 제국의 상황, 출생과 어린 시절, 농민운동가 활동, 중국 망명 생활을 거쳐 상하이 의거에 이르

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다. 24년을 불꽃처럼 살다 간 윤 의사의 생애를 소설처럼 엮었다. 2만 원.

● **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**(임대근 지음·파람북)=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역사,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다. 중국의 역사부터, 낮이 두껍고 속마음이 시커멓다는 뜻으로 중국인이 사용하는 단어 '후흑(厚黑)' 등 중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간결하게 정리했다. 1만7000원.

● **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**(린자오이 지음·허유영 옮김·행복한북클럽)=대만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하는 저자가 아시아

와 유럽의 노동 문화를 비교한 에세이. 세계에서 노동 만족도 1위, 행복지수 6위인 네덜란드의 근로 기준, 직업관, 삶과 일에 대한 철학을 분석한다. 노동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한다. 1만7000원.

● **파이브 포스**(스티븐 S 호프먼 지음·이희령 옮김·까치)=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자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가져올 세계를 예측했다. 인간의 뇌를 연결해 소통 속도를 높이고, 우주에서 살아갈 인간을 위한 최신 기술을 다룬다. 앞으로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묻는다. 2만 원.

● **문학이 사라진다니 더 쓰고 싶다**(강병용 지음·마음의숲)=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아시아학과 교수인 소설가의 에세이. 유튜브에 빠진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문학이 가야 할 길을 묻는다. 사람들이 텍스트를 읽지 않는 시대에 문학은 어떤 쓸모가 있는지,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되돌아본다. 1만5000원.

● **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**(브루스 D 페리, 오프라 윈프리 지음·부키)=오랫동안 어린 시절 상처와 싸워 온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아동 정신의학자 브루스 D 페리가 '트라우마와 치유'를 주제로 30년 넘게 나눈 대화를 담았

다. 트라우마가 우리 뇌와 몸에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. 1만8000원.

● **독립을 향한 집념**(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지음)=언론인이자 교육가,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를 다뤘다. 일본 와세다대에서 수학한 뒤 귀국해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을 지내며 3·1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선생은 이후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며 물산장려운동, 문맹퇴치운동 등을 추진했다. 여러 평전, 전기, 전집을 아우르고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반영한 수정 증보판이다. 3만5000원.